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Coping Strategy and Crisis of Mid-life Coupl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명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 Kim Myung Cha

목 차

- | | |
|----------------|---------------|
| I. 연구목적 | 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 방법 및 절차 | |

〈Abstract〉

Coping strategy and mid-life crisis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325 mid-life couples ranging in age 40~59.

Each participant was administered stressful life event scale, coping strategy scale, family cohesion scale and mid-life crisis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the experiences of stressful life event, but the perceived stress level of wiv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husband's.
2. Husbands seem to use problem solving strategy and wives seem to use restrain strategy more often.
3. Wives appear significantly higher mid-life crisis than husbands.

Especially family cohesion and passive coping strategy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 the mid life crisis of couples. Besides these predictors, experiences of stressful life event and perceived stress level a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husband's mid-life crisis. As for wive's mid-life crisis, coping strategies are significant predictors.

*본 연구는 재단법인 태평양 장학문화재단의 1990년도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연구목적

중년기는 잠재되었던 자아의 출현과 발달, 內的 통합, 변동에 대한 적응력, 모호성에 대한 관용 등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로 이러한 과정에서 중년기 개인은 자아정체감 위기, 사회심리적 갈등, 신체적 쇠퇴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중년기 발달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필연적 과정으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수반한다 하겠다.

특히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이 시작되고, 가족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처양식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가족 스트레스 연구에서 명백한 경향은 stressor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대처양식으로 그 관심이 변화하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변화는 모든 가족은 결국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을 경험하기 마련이나, 이로 인한 영향력은 가족마다 상이함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재정문제, 건강, 자녀의 진로문제, 직장문제, 사망의 문제 등 중년기 발달단계상의 특성과 관련하여 중년기 가족의 일상적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양식을 위기감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족생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반변인은 개인, 부부의 수준에서 분석되었으며, 지침으로 사용한 스트레스의 이론적 모델은 가족 스트레스의 사회적 모델과 개인 스트레스의 심리적 모델이다.

중년인구의 증가, 가족주기의 변화, 사회변화 등으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증가일로에 있으나,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변동에 직면한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제반 생활사건과 관련된 가족 스트레스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부중심의 생활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족생활에서 부부 상호간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상이함에 따라 상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가족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심한 변동에 처해있는, 그러나 인생주기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를 밟고 있는 중년기 부부의 당면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적응을 도와 바람직한 중년기 가족생활을 위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A. 대처양식과 적응

1. 대처양식의 개념

Folkman & Lazarus(1980)는 대처양식에 대한 4가지 이론적 관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가 자아과정을 강조하는 심리적 관점(Psychological Perspective)이다. 이 관점에서는 긴장을 완화시켜 평형을 되찾기 위해 반응하는 무의식적 방어체계가 대처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긴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심리적 능력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대처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의도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번째는 대처양식을 개인의 인성특성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인성특성의 결과로 정의하는 것이다(Personality Perspective). 그러나 비판자들은 모든 스트레스상황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대처양식을 사용한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상황에 따라 상이한 대처양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개인에 있어서도 배우자 사망에 대한 대처양식과 직장에서의 승진누락에 대한 대처양식은 상이하며, 대체로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정서적 대처양식을, 과업중심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양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관점은 상황변인을 고려하지 않는데 대하여 비판을 받는다.

세번째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상황에 의하여 대처양식이 결정된다는 상황적 관점으로(Situation Perspective), 이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서적 대처반응에 관심을 두며, stressor의 분류를 통하여, 상이한 stressor에 대한 대처양식이 각기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상황만으로 대처양식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생활사건과 관련된 stressor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네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은 개인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인지적, 상호작용론적 관점(Cognitive-Interactionist Perspective)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먼저 상황을 평가하고,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한 다음에(primary appraisal), 그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자원의 선택과 가능성을 평가한다(secondary appraisal). 이때 자원에는 인성, 방어기제와 같은 심리적 자원, 친구, 가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실제적인 대처양식이 결정되어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변경, 관리하거나 정서문제를 조정하게 된다. 이 관점은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 의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전제되며, 따라서 인성요인과 상황평가가 대처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스트레스에 대한 상황평가와 대처양식이 상호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이 관점은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알려진 매일의 일상적 긴장에 대한 고려, 인성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대처양식, 학습된 대처양식의 존재에 대한 고려도 모두 가능케 한다.(West, 1987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Lazarus 등 (1974)은 대처양식을 실제적, 또는 예측되는 stressor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취하는 인지적, 행위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회피, 위협, 공격, 도움추구 등을 통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차적인 외현적 행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정보 탐색 등의 인지적 행위, 그리고 억압, 고립, 주지화 등과 같은 내적 심리적 행위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Menaghan(1983)는 대처행위란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개인의 적응을 돕는 것이라 했으며, 대처행위의 연구는 스트레스 관리에 유의할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 신념, 자아와 같은 대처자원(1st level, coping resources), 스트레스에 당면했을 때 사용되는 습관적인 대처양식(2nd level, coping style), 주어진 stressor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상황적으로 특수한 외현적 또는 내현적 행위

(3rd level, coping efforts)의 3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대처행위란 다양한 생활사건에 직면하여 개인이 지니는 특정한 행위, 인지, 자각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획득된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처행위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행위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제거, 수정하거나,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의 의미를 재평가하여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거나(예: 긍정적 비교, 선별적 무시),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직접적 대처보다는 이로 인한 불안감을 극소화하기 위한 시도등을(예: 회피, 공상) 포함하는 복합적 반응이라 하겠다.

2. 대처양식의 종류와 적응

많은 연구에서 대처양식이 명료화되고 있는데 Moos & Billings(1982)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과 같이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problem-focused coping), 문제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관점을 변화시키는 방안(appraisal-focused coping),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정서적 긴장감을 관리하는 방안(emotion-focused coping)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러한 방법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동시에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중 문제중심 대처양식은 긍정적 건강과, 거부나 회피와 같은 간접적 정서반응은 부정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Davis, 1985에서 재인용). 대처양식의 연구에 있어서는, 결국 보다 효율적인 대처양식은 과연 어느 것이냐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기능적인 대처양식이라는데 일반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 시도와 함께, 개인의 기준이나 평가를 상황에 적절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Lazarus & Folkman(1984)이 구분한 문제중심대처양식과 정서중심 대처양식은, 대처의 2가지 주된 기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Pearlin & Schooler(1978)는 스트레스 상황을 조정하는 것, 개인의 긴장감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 문제의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대처양식을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가족기능

과 가족에게 기대되는 요구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MuCubbin 등(1982)은 대처양식을 가족내 대처전략(문제해결, 수동적 평가등)과 가족외 대처전략(영적, 형식적 비형식적 도움추구 등)으로 분류하고, 가족내 전략으로 대처가 안될 경우 가족외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며, 기능적 가족은 주로 가족내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Olson 등은 영적 도움추구가 가장 효율적 대처양식이고 다음이 문제해결, 형식적 비형식적 도움추구, 수동적 평가의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Bolsen, 1985에서 재인용).

한편 Anderson(198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감소에 일관성있게 기여하는 대처양식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재정의하는 방안(reframing), 즉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라고 하였다.

또한 Stewart(1988)는 개인, 부부, 가족, 직업 수준에 따라 효율적 대처양식이 상이하다고 했으며, McCrae(1989)는 대처양식이 스트레스 상황에 의하여 영향 받는 것으로 보고 상실, 위협, 도전상황으로 구분하여 효율적 대처양식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제안하였다. 그는 28개의 세분화된 특정 대처양식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경성 대처양식(neurotic coping)과 성숙한 대처양식(mature coping)으로 구분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owman(1990)은 많은 연구자들이 효율적인 대처양식의 개발에서 인지적, 문제 해결중심에 빠져 있는 듯하나, 이러한 접근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하여는 정교화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특히 부부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 문제해결보다는 정서적 반응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중심의 접근은 잠정적 효과가 있을 따름이며, 정서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처양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데에는 보편적으로 동의하나, 과연 어떠한 대처양식이 보다 효율적이며 다양한 대처양식을 어떻게 의미있게 유용한 척도로 정리하느냐에 대하여는 연구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3. 성별에 따른 대처양식

남녀의 상이한 성격학 사회화의 결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은 상이하며,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대처양식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대체로 남성은 문제중심적, 인지적, 직접적 stressor를 무시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여성은 수동적, 정서적, 종교에 의지, 도움 추구, 회피 등의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여성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려 하며, 스트레스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려 갈등을 내면화하며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Davis, 1985, Costa & McCrae, 1989).

그러나 Folkman & Lazarus의 연구에서는 stressor의 종류를 통제한 경우에는 대처양식 사용에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Labouvie-Vief(1987)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보다 문제 중심적 해결방안을 사용한다는 데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Bowman(1990)도 최근의 200여개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성별에 따른 대처양식의 차이는 기껏해야 확실하지 않은 지지를 받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축적된 생활사건의 영향을 남녀가 각기 상이하게 받는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은 건강,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남성은 직업과 관련하여 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성의 역할이 보다 높은 수준의 만성적 스트레스를 내포한다(Billings & Moos, 1984).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이보다는 노인이 생활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경향으로 나타났다(West, 1987).

결국 stressor에 대한 평가나 대처양식이 남녀별로 상이하리라는 것은, 남녀의 사회화나 인성, 대처자원 등이 상이한데 기인하리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일관된 것은 아니다.

4. 연령에 따른 대처양식

연령증가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의 변화여부에 대하여는 2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번째 견해는 연령증가에 따라 비효율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인데(regression 가설), 이것은 노인이 될수록 경직되고 의존적으로 변

화하며 현실에 대한 거부와 왜곡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처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utman(1970)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능동적 통제에서 수동적 통제로, 그리고 문제를 왜곡하거나 거부하고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는 신비적 통제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연령증가에 따라 개인은 현실을 적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효율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한다는 것(maturational 관점)으로, 노년기에 이를수록 적대적 반응이나 회피적 공상, 원망 등을 덜 사용하며, 보다 수용적으로 되고 논리적 분석이나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Billings & Moos, 1984, Davis, 1985).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연령에 따른 대처양식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며, 각 연령층이 자주 받는 stressor의 종류와 관련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연령증가에 따라 대처양식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비효율적 대처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따름이며, 보다 많은 stressor를 경험한 노인이 젊은이에 비하여 효율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한다고 본다. 젊은이가 자주 받는 stressor는 직접적 대처양식이 가능하나 노년기에 발생하는 상실과 관련된 stressor(예: 배우자 사망, 신체적 노쇠...)는 직접적 대처양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으며, 수동적 대처를 요한다는 것이다.

Folkman & Lazarus(1980)는 45~64세 대상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대처양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보고하고, 직업이나 가족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보고하였다고 했다.

MuCrac(1982)도 50~90세 집단과 21~49세 집단의 대처양식은 유사하다고 했으며, 대처양식의 차이는 당면한 stressor에 기인한 것이라 했다.

결국 연령변화가 대처양식에 미치는 효과는 기껏해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정도이며, 연령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즉 성인이 변화는 복잡한 양상을 띄우므로 대처양식은 연령외에 stressor의 종류, stressor에 대한 개인의 상황평가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받는다.

B.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

Angell(1936)는 체제이론의 관점에서 가족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체계를 유지·강화하는 중요변인은 응집력과 적응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Hill의 ABCX 모델 발표 이래로, B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자원으로 응집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족자원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개인 자원과 구분되는 개인자원의 복합이라 할 수 있으며, Hill은 응집력을 강한 애정적 유대, 가족의 전통에 대한 긍지, 공동활동에의 참여로 개념 정의하였다.

Olson 등(1983)은 응집력을 가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생활을 통하여 가족원이 경험하는 자율감의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가족의 적응과 응집력은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따라서 응집력은 가족의 위기극복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들은 응집력의 정도에 따라 자율성이 높고 가족원 상호간에 애착과 관여가 결여된 과잉분리(disengaged) 가족으로 부터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충성으로 가족원의 독립심이 저하된 미분화(enmeshed) 가족, 그리고 그 중간 수준에 비교적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는 separated 가족, connected 가족으로 분류하고 이 응집력의 4수준과 가족의 효율성은 곡선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Lavee 등(1985)은 가족 스트레스 모델에서 적응자원을 개인적 자원(자정심, 기술, 지식), 가족자원(적응, 응집력, 의사소통), 사회적 자원(대인관계망)의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가족자원은 가족의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원은 완충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결국 가족의 적응력은 가족원의 가치합의나 의견 일치에 의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통된 평가를 하여, 함께 인식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일치,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족이 기능적 가족이라 하겠다.

III. 연구 문제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중년 부부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생활 사건과 이에 따르는 스트레스 인지 수준 분석.

<연구문제 II>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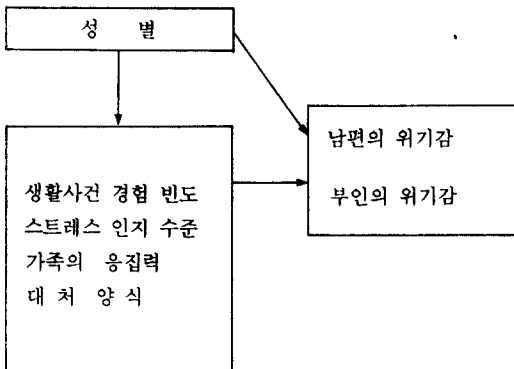
(II-1) 중년기 부부의 대처양식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감 분석.

(III-1) 중년기 부부의 위기감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III-2) 중년기 부부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내용은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림 1〉 중년기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식과 위기감의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및 절차

A. 측정도구

1. 생활사건 척도

생활사건은 가족체계의 평형을 방해하는 사건으로 생태적 균형의 변동을 초래케하는 시발점이다. 생활사건 척도는 McCubbin 등(1979)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Olson(1983), Boss(1985) 그리고 이평숙(1984)의 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상황에 맞도록 번안, 수정하여

62문항을 작성하였다.

먼저 47쌍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4이상의 응답자가 경험한 부정적 생활 사건을 중심으로 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대인관계 문제, 재정문제, 건강문제, 자녀의 진로문제, 직장문제,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30문항), 이 척도로 생활사건 경험유무와 스트레스 인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사건 경험유무란 중년기 부부가 그 생활사건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점, 경험한 경우에는 1점의 점수를 주었다.

스트레스 인지수준이란 경험한 생활사건에 따른 긴장감이나 부담감 정도를 의미하는데,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고 부터 대단히 심각하였다에 이르기까지 1점~5점의 점수를 준 5점 Likert형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대처 양식 척도

McCubbin 등(1982)의 F-Copes(Family Coping Strategies), 김애순, 윤진(1987)의 대처양식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40문항을 1차로 선정 한 뒤,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1문항을 채택하였다.

31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수동적 대처, 문제 중심적 대처, 신앙에의 의지,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 추구, 감정억제나 인내의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3. 가족 응집력 척도

Olson 등(1983)의 응집력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12문항을 1차로 선정 한 뒤,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11문항이 채택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모두 가족의 응집성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종합적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의 응집력은 부부의 점수를 합하여 2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4. 중년기 위기감 척도

과거와 현재의 삶과 생활전반에 대한 개인의 부정

적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김명자(1988)의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대처양식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응집력과 위기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변인별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는 표1과 같다.

<표 1> 척도의 신뢰도

변인별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생활사건 척도	대인관계	6	.76
	재정문제	6	.80
	건강문제	7	.76
	자녀의 진로문제	5	.75
	직장문제	3	.80
	가족·친지의 사망	3	.66
	전 체	30	.88
대처양식 척도	수동적 대처양식	11	.82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7	.82
	신앙에 의지	4	.94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요청	5	.83
	참고 견담	4	.68
전 체	31	.84	
응 집 력		11	.90
중년기 위기감		11	.85

B.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9세에 해당하는 부부로 적어도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 중이며, 자녀 중 1인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부모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1990년 9월에 해당 중년기 부부 47쌍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서울시내 8개 대학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모두 1000부(500쌍)였으며, 780부가 회수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650부(325쌍)을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편	325	50	남편의 종교유무	유	176	54.2	
	부인	325	50		무	148	45.5	
남편의 연령	40대	227	69.8	부인의 종교유무	유	244	75.1	
	50대	98	30.2		무	81	24.9	
	남편의 평균연령		51.6세		가족 형태	핵가족	279	85.8
부인의 연령	40대	227	69.8	직계가족		46	14.1	
	50대	98	30.2	막내자녀 위치	중학교재학	62	19.1	
	부인의 평균연령		47.8세		고등학교	138	42.5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24	7.4	기 타	대학재학	125	38.4	
	고 졸	92	28.3		만자녀 위치	대학교재학	219	67.4
	대졸그이상	209	64.3			군복무		
부인의 학력	중졸이하	86	26.5	취업, 가사	51	15.7		
	고 졸	147	45.2	결 혼	55	16.9		
	대졸 그 이상	92	28.3	평균자녀수 3.07명				
남편의 직업	무직·은퇴	20	6.1	결혼지속연수	20년 미만	25	7.7	
	단순노무				20-30년	261	80.3	
	숙련노동	25	7.6	30년 이상	39	12.0		
	자영상공	77	23.8	평균결혼연수 24년				
	사무직	25	7.6	부인의 직업유무	유	58	17.8	
전문·기술직	178	54.8	무		267	82.2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V.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I〉 중년기 부부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생활사건과 이에 따르는 스트레스 인지수분 분석.

〈연구문제 I〉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사건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 표 3이다.

생활사건은 기존의 생활패턴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족의 평형을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생활사건은 개인이나 가족의 자각과 자원, 상황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력이나 자극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먼저 표 3에 의하면 중년기 부부 모두가 비교적 빈번하게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자녀의 진로 설정 문제, 자녀의 중요한 시험, 자녀와의 갈등, 시력, 청력, 치아 상태의 변화, 부부간의 불화나 성생활 불만,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부모나 기타 가족원의 질병 등으로 드러났으며, 부인의 경우 시가 식구와의 불화도 빈번하게 겪는 생활사건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인생주기의 각 단계에서 직면한 특정과업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성인초기에는 성취나 과업중심의 문제가, 노년기에는 상실감의 문제가 대두되며(Labouvie, 1987), 중년기에는 생물학적 변화, 자녀의 성장 독립에 따른 역할 감소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진로설정 문제나, 자녀의 중요한 시험과 관련된 사건을 부부 모두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와 함께 한국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제기해준다. 결국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의 문제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집약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위영역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여 paired-t 검증을 실시해보니(표 4), 남편은 부인보다 직장,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과 관련된 생활사건을 보다 빈번하게 겪으며, 부인은 남편보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생

활사건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사건 하위영역 중 남편과 아내가 각각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건을 추후 검증한 결과, 부인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빈번히 경험하며 그 다음에 건강, 자녀의 진로문제, 가족, 친지의 사망, 재정, 직장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는 재정, 직장, 가족, 친지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에 비하여 대인관계, 건강, 자녀의 진로문제를 보다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다 자유로이 내면적 자유를 탐구하는 시기로, 중년기 남성은 객관적 성취나 일 자체보다는 대인관계에 관심이 증가하며, 중년기 여성은 가족생활이나 건강과 관련된 생활사건의 영향을 더욱 받는다고 한 선행연구(West, 1987)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음에 생활사건에 따른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부가 모두 경험했다고 응답한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부 모두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생활사건은, 실수입 감소, 장기 실직, 사업실패, 금전상의 손실과 같은 재정적 사건과 자녀의 진로설정문제, 자녀의 중요한 시험이나 시험실패, 재수 등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부모의 사망이다. 이에 덧붙여 부인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자녀, 부모 기타 가족원의 심한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형제자매나 친척의 사망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일한 생활사건에 대하여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Davis, 1985). 본 연구에서도도 중년기 남편과 부인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종류와 경험 빈도는 부부간에 유사하지만,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부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부부간에 상이한 것은, 남녀 사회화, 인성특성, 대처양식과 기술이 각기 상이한데 기인한다고 이론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그들의 정서적, 표현적 역할로 인하여 가족생활, 대인관계에 대하여 더욱 정서적으로 개입하며,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표 3) 중년기 부부의 생활사건 경험빈도 및 스트레스 인지 수준.

요인	생활 사건 내용	사건경험유무			스트레스인지수준			
		남편 X SD	부인 X SD	paired t	남편 X SD	부인 X SD	N	paired t
I 요인 대인 관계	친지·친구와의 불화	50 50	51 50	- .60	2.65 1.10	2.82 1.12	114	-1.54
	부부간 불화	65 48	73 44	-3.16**	2.33 1.09	2.49 1.14	187	-2.11*
	성생활 불만	63 48	65 48	-.87	2.01 96	2.10 99	166	-1.14
	시아, 처가 식구와의 불화	55 50	66 48	-3.32**	2.25 1.10	2.51 1.12	142	-2.51*
	자녀와의 갈등	72 45	80 40	-3.13**	2.40 97	2.57 96	206	-2.30*
	부모 부양에 대한 어려움	43 50	46 50	-1.21	2.21 1.00	2.39 1.17	111	-1.53
II 요인 재정 문제	실수입 감소	53 50	55 50	-.75	3.26 1.08	3.33 1.09	144	-.72
	금전상의 큰 손실	52 50	52 50	-.13	3.11 1.10	3.04 1.18	138	.83
	큰 빚을 걸	25 43	24 43	.14	2.91 1.23	2.95 1.27	56	-.2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기 실직, 사업실패	23 42	25 43	-.31	3.22 1.34	3.44 1.36	55	-1.73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58 49	58 49	.12	2.80 1.02	2.83 91	157	-.44
	취미, 클럽 활동 중단	30 46	30 46	.43	2.24 1.12	2.44 1.12	55	-1.24
III 요인 건강 문제	본인의 심한 질병, 부상	51 50	58 50	-1.90**	2.81 1.17	3.11 1.09	121	-2.44*
	배우자의 심한 질병, 부상	56 50	47 50	2.74**	2.88 1.06	2.95 1.17	107	-.58
	자녀의 심한 질병, 부상	46 50	44 50	.93	2.81 1.24	3.06 1.28	108	-2.31*
	부모나 기타가족의 심한 부상	55 50	58 50	-.99	2.92 1.02	3.06 1.10	142	-1.55
	수면 습관의 변화	51 50	53 50	-.58	2.38 1.12	2.45 1.03	116	-.57
	배경, 장년기 경험	49 50	58 49	-2.79**	2.45 93	2.66 1.10		-2.22*
	시력, 청력, 치아상태 변화	78 41	77 42	.71	2.87 98	2.89 1.07	216	-.29
IV 요인 자녀의 진로 문제	자녀의 진로 설정 문제에 대한 고민	83 38	86 35	-1.61	3.11 1.06	3.27 1.10	251	-2.40*
	아들의 군입대	27 45	30 46	-1.51	2.20 1.20	2.48 1.36	71	-2.56*
	자녀의 중요한 시험	74 44	76 43	-1.31	3.18 1.23	3.37 1.25	220	-2.45*
	자녀의 중요한 시험실패	50 50	48 50	.61	3.38 1.28	3.60 1.26	128	-2.69**
	자녀의 실패로 인한 계수	38 49	36 48	.93	3.35 1.24	3.67 1.29	99	-3.71***
V 요인 직장	직장에서 상사, 동료와 불화	51 50	21 41	9.31***	2.21 1.04	2.26 1.01	47	-.30
	승진 누락, 인사 불만	36 48	13 34	7.83***	2.44 1.16	2.67 1.24	27	-.80
	상사, 부하직원의 부정	41 49	13 34	9.38***	2.30 95	2.22 1.25	27	.28
VI 요인 가족·친지 사망	형제자매나 친척의 사망	43 50	41 49	.76	2.85 1.24	3.15 1.18	94	-2.31*
	가까운 친구의 사망	47 50	20 40	8.29***	2.84 1.13	2.95 1.15	43	-.57
	부모의 사망	37 48	35 48	.75	3.53 1.29	3.62 1.28	85	-.62

*P<.05 **P<.01 ***P<.001

N은 각 생활사건을 부부 모두가 경험한 빈도수임.

(표 4) 중년기 부부의 생활사건 영역별 경험빈도

생활사건 영역별 경험빈도	남편		부인		남편 : 부인 paired-t
	X SD	F Duncan	X SD	F Duncan	
1요인 대인관계	.58 .34	A	.64 .31	A	-3.28***
2요인 재정	.40 .32	B	.41 .31	B	-.11
3요인 건강	.55 .32	13.64*** A	.56 .31	118.43*** C	-.55
4요인 자녀의 진로	.54 .31	A	.55 .30	C	-.90
5요인 직장	.43 .41	B	.16 .31	D	10.75***
6요인 가족·친지사망	.42 .39	B	.32 .36	E	4.83***
전 체	.50 .23		.48 .21		1.95

***P<.001

지원도 많이 하므로 이것이 여성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더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가족에 있어, 자녀의 입시를 비롯한 자녀 교육과 제반 가정생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과중하며, 따라서 부인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연구문제 II〉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 분석.

〈연구문제 II〉를 규명하기 위하여 stressor 발생 시 중년기 부부가 사용하는 대처양식을 paired-t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5종류의 대처양식 모두에서 부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편은 부인에 비하여 보다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부인은 남편에 비하여 수동적 대처, 신앙에 의지,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 요청, 감정억제나 인내 등의 대처양식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또한 남편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처양식은 문제중심적 대처이었으며, 부인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처양식은 감정억제나 인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內的 통제력

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스스로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는 Krause(1986)의 견해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직접적, 인지적, 문제중심적 대처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처하려 하며, 스트레스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West, 1987, Blanchard-Fields & Irion, 1988, Cost & McCrae, 1989)와 일치한다.

결국 남녀의 상이한 성역할 사회화로 인하여 보다 체념적이고 숙명론적인 가치의식이 중년기 부인의 대처양식에도 반영되는 듯하다.

〈연구문제 III〉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에 따른 위기감 분석

중년기 부부의 위기감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부간의 평균점수와 paired-t 검증을 한 결과가 표 6이다.

이에 의하면 부인의 위기감이 의미있는 차이로 뚜렷하게($p <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많은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더욱 많이 받는다는 여러 선행

〈표 5〉 중년기 부부의 대처양식

대처 양식	남 편		부 인		남편 : 부인 paired-t
	\bar{X}	SD	\bar{X}	SD	
1. 수동적 대처	2.37	.74	2.64	.75	-5.69***
2. 문제중심적 대처	3.65	.77	3.45	.79	3.83***
3. 신앙에 의지	2.35	1.42	3.04	1.48	-8.85***
4. 친척·친구의 도움요청	2.80	.97	3.03	.97	-3.65***
5. 감정억제나 인내	3.27	.85	3.63	.78	-6.17***

*** $P < .001$

〈표 6〉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에 따른 위기감

	남 편		부 인		전 체		남편 : 부인 paired-t검증
	\bar{X}	SD	\bar{X}	SD	\bar{X}	SD	
위기감	3.08	.68	3.27	.67	3.18	.59	-4.90***

*** $P < .001$

연구(Cox, 1980, Davis, 1985, 김명자, 1988)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다.

결국 중년기 부인이 경험하는 위기감은 자아정체감, 묻혀있던 자이출현에 따르는 욕구, 변화하는 역할, 불확실한 미래, 신체적 노화 등에 대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자녀양육 역할이 감소되면서 증가된 자유감과 함께 잠재되어있던 능력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것이 중년기 부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연구문제 III에 부수된 문제로, 중년기 위기감을 설명해주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형내의 모든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변인들을 선정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에는 생활사건 경험빈도가 높고, 가족의 응집력이 낮으며, 대인관계, 건강,

재정,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각각 높고, 수동적 대처양식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중년기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7개 변인에 의하여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은 33% 정도가 설명되고 있다.

부인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이 표8에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응집력($\beta = -.28$), 수동적 대처($\beta = .20$), 재정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beta = .16$),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 요청($\beta = .14$), 신앙에 의지($\beta = -.13$)의 순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5개 변인에 의하여 부인의 중년기 위기감은 22%정도가 설명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의 응집력이 낮고 수동적 대처양식을 빈번히 사용하고, 재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자주 요청하는 경우에 위기감이 높았으며, 신

<표 7>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		
	B	β	R ²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	.18	.25	.18***
가족의 응집력	-.31	-.26	.25***
건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	.17	.25	.28***
재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	.12	.19	.30**
생활사건 경험빈도	-.80	.27	.31**
수동적 대처양식	.11	.12	.32*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	.07	.11	.33*
회귀상수	3.59		
R ²	.33		

*P<.05 **P<.01 ***P<.001

<표 8> 부인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 부인의 중년기 위기감		
	B	β	R ²
가족의 응집력	-.33	-.28	.11***
수동적 대처양식	.18	.20	.16***
재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	.10	.16	.19**
친척·친구의 도움 요청	.10	.14	.20*
신앙에 의지	-.06	-.13	.22*
회귀상수	3.73		
R ²	.22		

*P<.05 **P<.01 ***P<.001

양에 의지하는 대처양식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에 위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응집력이 중년기 남녀의 위기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이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영위되면서, 가족의 응집력이, 불안하고 냉정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굳건한 가족자원으로 가족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나 후원감이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각을 감소시켜 가족의 취약성을 극소화할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중, 수동적 대처양식이 중년기 부부의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비효율적 대처양식으로 드러났으므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극적 관여와 함께, 개인의 기준이나 평가를 상황에 적절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년기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여성의 경우에 한한 것이기는 하나, 신앙에 의지가 중년기 위기감 극소화에 기여하는 대처양식으로 나타난 것은, 인생의 유한성 문제에 직면한 중년기 개인에게 종교생활은 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여, 중년기 적응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의 경우에는 생활사건 경험빈도와 가족의 응집력 그리고 대인관계, 건강문제, 재정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인지수준이, 부인의 경우에는 가족의 응집력과 대처양식이,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객관적 심각성이나 생활사건 경험자체보다는, 생활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자각이 중년기 부인에게 더욱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도 생활사건 경험과, 심리적, 신체적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으나, 매우 약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했으며 (Bolsen, 1985), 사회심리적 자원이나 대처양식의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rause, 1986, Lin & Ensel, 1989).

VI.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첫째, 중년기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 문제나, 자녀의 중요한 시험과 관련된 생활사건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생활사건에 대한 경험은 부부가 유사하나, 이에 따르는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부인의 경우에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부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사건에 대한 인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부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가족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특히 중년기 부인의 생활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양식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은 문제 중심적 대처를, 부인은 감정억제나 인내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감은 부인이 남편에 비하여 높았으며, 부부 모두 가족의 응집력이 낮고, 수동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중년기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고 효율적 대처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중년기 위기감을 극소화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 외에 남편의 중년기 위기감은 생활사건 경험빈도와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의하여, 부인의 중년기 위기감은 대처양식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일상적 생활사건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양식, 위기감과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중년기 가족의 당면 문제와 적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성, 자아수준과 같은 심리적 자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한편, 일상적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양식 뿐 아니라, 부부관계, 자녀의 진로문제 등 특정생활사건에 적절한 대처양식에 대하여,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활사건 역시 일상의 사소한 문제, 만성적 긴장 문제, 사회 문제 등 micro, meso, macro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 인(1989). 중년기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김명자(1988).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김애순, 윤 진(1987). 성인기 연령증가와 생활평가에 따른 대처행동 양식의 차이. 한국 심리학회지, 6, 1-9.
- 4) 김양희(1986). 가족스트레스의 연구경향. 중앙대 가정대 논집, 4, 7-19.
- 5) 이영희(1985).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 사회복지연구, 13, 27-64.
- 6)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8) Anderson, S. A.(1988). Parental stress and coping during the leaving home transitions. *Family Relations*, 37(2), 160-165.
- 9) Billings, A. G., & Moos, R. 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10) Blanchard-Fields, F., & Irion, J. C.(1988). The relation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coping in two contexts:Age as a moderator variable. *Psychology and Aging*, 3(2), 197-203.
- 11) Blanchard-Fields, F., & Robinson, S.L.(1987). Age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controllability and coping. *Journal of Gerontology*, 42(5), 497-501.
- 12) Bolsen, N. R. F.(1985). The influ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upon subjective family satisfaction among rural Kansas families in the middle years, A path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13) Boss, P. G.(1988). Family stress. In M. B. Sussman & S. K. Steinmets(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 Y.:Plenum Press, 629-724.
- 14) Boss, P.G., et al.(1988). Normative loss in mid-life families:rural, urban, and gender differences. In R. Marotz-Baden et al. (eds), *Families in rural America:stress, adaptation and revitalization*. St. Paul.: NCFR., 149-158.
- 15) Bowman, M. L.(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Measuring marital and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463-474
- 16) Chiriboga, D.A.(1984). Social stressors as antecedents of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39(4), 468-477.
- 17) Davis, G. R.(1985). Developmental patterns of stress and coping:middle age and older adul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hgton.
- 18) Doherty, W.(1981). Locus of control differences and marital dis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2), 369-377.
- 19) Foster, J. M., & Gallagher, D.(1986). An exploratory study comparing depressed and non-depressed elder's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Gerontology*, 41(1), 91-93.
- 20) Haley, W. et al.(1987). Stress, appraisal, coping,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adaptational outcome among dementia caregivers. *Psychology & Aging*, 2(4), 323-330.
- 21) Irion, J., & Blanchard-Field, F.(1987),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adaptive coping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42(5), 502-504.
- 22) Krause, N. C.(1987). Chronic strain, locus of control, and distress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4), 375-382.
- 23) Krause, N. C.(1986). Stress & coping: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beliefs. *Journal of Gerontology*, 41(5), 617-622.
- 24) Krause, N. C.(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4), 349-356
- 25) Labouvie-Vief, G. et al.(1987). Age, ego level,

- and the life span development of coping and defense processes. *Psychology & Aging*, 2(3), 286-293.
- 26) Lavee, Y., et al.(1985).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An empirical test by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4), 811-825.
- 27)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Springer.
- 28) Lin, N. & Ensel, W. M.(1989). Life stress and health: Stressors and resour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382-399.
- 29) McCrae, R.R.(1989), Age differences and changes in the use of coping mechanisms. *Journal of Gerontology*, 44(6), 161-169
- 30) McCubbin, H.I.& Patterson, J. M.(1982). Family adaptation to crisis. In H. I. McCubbin, A. Cauble & J. Patterson(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Springfield, Illionis:Charles C. Thomas, 26-47.
- 31) Menaghan, E.G.(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71-385.
- 32) Olson, D.H.et al.(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 III). St. Paul,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33) Pearlin, L.I.& Schooler, C. (1987).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34) Smith, D.E(1985).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o family satisfaction: A study of family stress pile-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35) Stewart, K.L.(1988). *Stress and adaptation: A multi system model of individual, couple, family and work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36) Walkér, A. J. (1985). Reconceptualizing family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4), 827-837.
- 37) Weigel, R.R.& Weigel, D.J.(1988). Identifying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in two generation families. In Marotz-Baen et al.(eds), *Families in rural America: stress, adaptation and revitalization*. St. Paul.:NCFR., 216-224.
- 38) West, G.E(1987). *The impact of coping resources and strategies upon health: An analysis of age and sex differ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